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Scale for Young Children

김 영 옥**

Kim, Young-Ok

Abstract

Construction of the Prosocial Behavior Scale for young children(PBSYC) was based on document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kindergarten teachers and child development specialists. After 200 kindergarten teachers evaluated the 42 items of the PBSYC,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items were categorized into seven factors: leadership, helping, communication, concern, proximity, sharing and empathy. As factos showed high correlation. The prosocial behavior of 306 4 to 5 year old children was measured with the PBSYC and compared with the Babock, Hartle & Lamme(1995) scale. The resulting correlation between the 2 scales was .764. Further tests indicate that the PBSYC is a valid and reliable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young children.

Key Words :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prosocial behavior scale), 감정이입(empathy), 지도성(leadership), 의사소통(communication)

※ 접수 2003년 6월 30일, 채택 2003년 7월 28일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선도 연구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C00585)

**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yokim@chonnam.ac.kr

I. 서론

학교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 중의 하나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이다(Kim & Stevens, 1987; Wyckof & Klein, 2000). 사회적 행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인간 사회 속에서의 맥락을 유지 또는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른바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론은 기질론적 입장(trait theory), 생물학적 입장(biological theory), 정신분석학적 입장(psychoanalytic theory), 학습이론적 입장(learning theory), 인지발달론적 입장(cognitive-developmental theory)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입장들은 생물학적-진화론적 접근(biological-evolutionary approach)과 발달적-학습론적 관점(developmental-learning perspective)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은화 · 김영옥, 2000; Crain, 1980; Perry & Bussey, 1984; Radke-Yarrow, Zahn-Waxler & Chapman, 1983).

대체로 돕기(helping), 나누기(sharing), 협력하기(cooperating), 위로하기(comforting) 등으로 구분되는 친사회적 행동은 근간이 되는 기본 요소로 감정이입(empathy)과 역할담당(role-taking)을 들고 있다. 또한 감정이입과 역할담당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수행능력(competence)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gen, 1995; Eisenberg & Guthrie, 1999; Farver & Branstetter, 1994; Shantz, 1983). 유아가 그들의 사회적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친사회적 발달과 긍정적인 관련을 맺는다.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위치, 나이, 성, 우정, 필요의 정도, 공평 같은 복합적인 변인들 및 가치가 있는가와 관련된 정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ford & Foley,

1996; Froming, Allen & Underwood, 1983; Naparstek, 1990; Zimmerman & Levy, 2000). 또한 자신의 우정을 다시 회복하는 수단으로 보일 때 또는 자아구조와 자기인식에 따라 더 관대하게 행동하였다(Froming & Nasby, 1998; Greener, 2000; Staub & Noerenberg, 1981).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양상은 나이와 도덕적 추리 능력 수준 등의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중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Eisenberg, 1996; Miller & Eisenberg, 1996).

이외에도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관계를 밝힌 변인으로서 분위기와 모델링 효과(Karylowski & Karylowski, 1984; Kendrick, Baumann & Cialdini, 1979; Mccall, Parke & Kavanaugh, 1977; Perry & Bussey, 1984; Rosenkoetter, 1999; Zielinska & Chambers, 1995), 양육태도(Dix & Grusec, 1985; Hill & Mullis, 2000; Horton-Parker, 1998; Krevans & Gibbs, 1996), 그리고 훈련 및 프로그램 효과(Eisenberg & Guthrie, 1999; Fabes & Eisenberg, 1994; Froming & Nasby, 1998; Horton-Parker, 1998)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기부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여 후반기로 오면서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확대와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가도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온 경향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척도나 관찰항목(checklist) 등은 대부분 인위적 실험실 상황이나 몇 개의 하위 목록만을 또는 다른 사회적 행동 및 기술의 영역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인위적 실험실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 측정에 사용된 과제(나희주, 1998; 이옥경, 1995;

정현희, 1990; 최윤정, 1998, Iannotti, 1985; Staub, 1971)는 대체로 사탕, 연필 나눠주기, 땅에 떨어진 물건(피클, 놀잇감) 주워주기를 통한 행동을 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검사 과제는 실험대상 유아가 자신의 욕구와 갈등되는 상황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조건을 조작 또는 강조하여 구성되었다.

일찍이 Stowitschek(1986)가 개발한 사회적 수행력 개입 프로젝트(Social Competence Intervention Project : SCIP) 비디오(video)는 목표행동을 협동적으로 놀이하기, 나누기, 돕기, 놀이 조직화하기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 후 Babcock, Hartle & Lamme(1995)는 감정이입(empathy), 나누기(sharing), 돕기(helping), 의사전달(commucation), 근접성찾기(proximity seeking), 지도성(leadership)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 Beaty(1999)는 친사회적 행동의 평가항목을 자기존중감(self-esteem), 자기조절(self-control), 타인존중감(other-esteem), 우정(friendliness), 관대함(generosity), 협동(cooperation), 도움주기(helpfulness), 존중(respect)의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Babcock, Hartle & Lamme(1995)은 위의 6가지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교사가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상황을 관찰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바 있다. 국내의 여러 연구들(김영옥·윤경선, 1999; 손혜숙, 2000; 이원영·박찬옥·노영희, 1993; 이은해·고윤주, 1999; 이은화·김희진·이승연, 1996)도 관련된 사회적 행동이나 기술들을 변인으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한 바 있다. 또한 실험연구의 대

부분은 돕기, 나누기 등을 자발적인 경우, 응락, 거절의 경우로 차등화하여 점수화하였다. 검사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림 상황 또는 갈등장면을 보여주고 몇가지 수준이나 단계를 설정하여 점수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둘 때 이러한 방법들은 유아의 행동을 조기에 중재하거나 진단 또는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행동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이론 연구 및 임상적 연구의 축적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회적 행동과의 맥락에서 일부 포함되어 이루어질 뿐 우리나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자유로운 놀이 상황에서 측정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친사회적 행동연구도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만 4, 5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그 적합성을 알아보는 데 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친사회적 행동평가 척도의 문항들은 타당하게 선별되었는가?
- (2) 친사회적 행동평가 척도의 문항들은 신뢰로운가?
- (3) 친사회적 행동평가 척도에 의한 연령별, 성별,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만 4, 5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정 중에 있는 현장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친사회적 행동 목록에 대하여 중요성, 적합성, 측정 가능성을 평정하고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K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235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친사회적 행동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적합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총 200부로 요인분석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예비조사 대상 교사 중 여러 가지 행사로 유치원 사정상 관찰자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교사를 제외한 35명과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K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24명을 선정하여 관찰자 훈련을 3차례 실시하였다. 유치원교사 59명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서 1명-7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와 Babcock, Hartle & Lamme(1995)가 제안한 범주를 기초로 한 평가 척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친사회적 행동평가 척도의 적합성을 위해 표집된 교사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유치원교사의 일반적 특성 N=59

변 인	구 분	빈 도(%)
경 력	만 1년 ~ 만 5년	23(38.98)
	만 6년 ~ 만 10년	27(45.76)
	만 11년 ~ 만 15년	2(3.39)
	만 16년 ~ 만 20년	5(8.47)
	만 21년 ~ 만 25년 이상	2(3.39)

유아의 경우 총 321명이 임의 표집되었으나 대상 연령에서 벗어나거나 두 가지 평가 척도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는 15명을 제외하고 총 306명의 자료가 통계처리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일반적 특성 N=306

변 인	구 분	빈 도(%)
성	남 아	97(31.7)
	여 아	209(68.3)
연 령	만 4세	50(16.3)
	만 5세	256(83.7)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	1년	65(21.2)
	2년	139(45.4)
	3년	102(33.3)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관련 연구 및 기존의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도한 측정도구는 기존의 도구와 같은 실험상황이 아닌 유아의 일상 놀이상황에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측정 도구에 대한 공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의도한 바대로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상황 속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Babcock, Hartle & Lamme (1995)의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이입(empathy), 나누기(sharing), 돕기(helping), 의사전달(communication), 근접성 찾기(proximity seeking), 지도성(leadership)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상황 속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3.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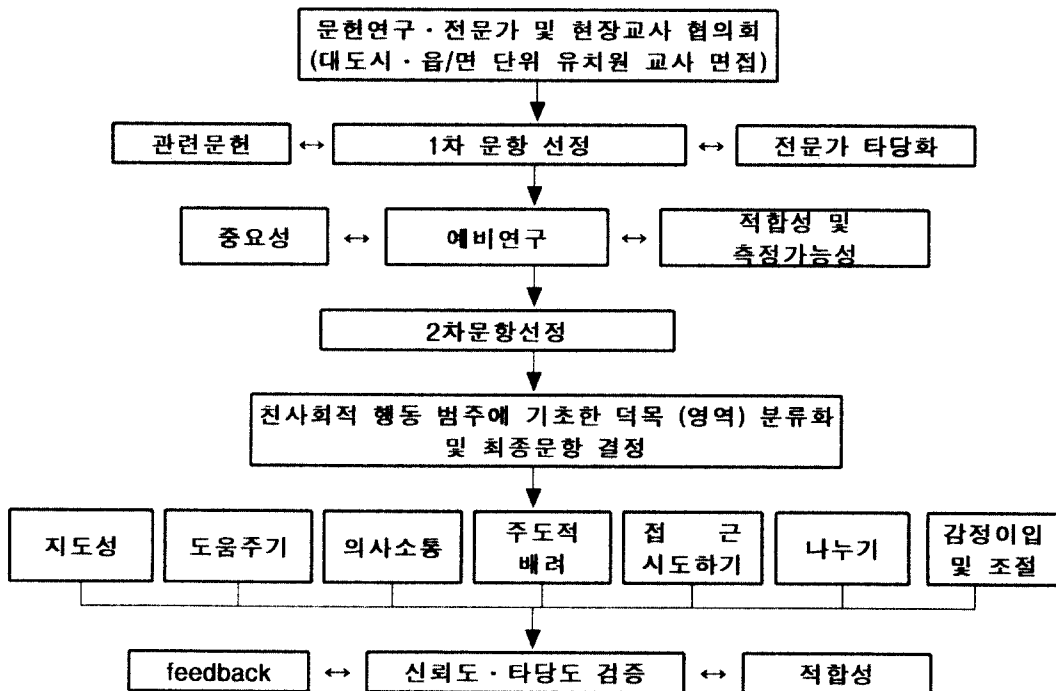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1) 문헌 조사 및 분석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과 2002년 5월 27일~2002년 6월 28일까지 현장에서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 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목록을 추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유아교육 전문가와 현장교사가 합의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마련하고 개념체계를 정리하였다.

2) 문항제작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첫 단계로 국내·외 관련 문헌 연구와 척도들을 비교·분석하였고, 예비연구 대상인 전문가 및 현장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항목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항목들은 척도개발 대상유아(만 4, 5세)의 연령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안하기, 보살피기, 관심 가지기, 나누기, 미소 보이기 등의 105가지가 수집되었으며 하위특성을 나누지 않고 문항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문항들은 전문가와 몇 차례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적합한 문항 45개를 선별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세 명의 전문가와 타당화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총 42개 문항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였다.



<그림 1> 유아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과정

3) 예비조사

제작된 유아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는 유아교육 석사학위를 소지 또는 과정중에 있는 현장교사 21명을 대상으로 항목 내용의 중요성, 적합성 및 측정가능성에 대해 상·중·하 3단계로 평정하게 하고 '상'과 '중'으로 평정된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하'로 평정된 항목들 즉, 문항들의 평정결과 도움 요구하기, 애정표시하기, 소속감 보이기, 보살피기 등은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친사회적 행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논의 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보완하여 친사회적 행동 문항에 포함시켰다. 선정된 친사회적 행동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유아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교사경력 1년 이상인 공립 유치원 교사들 235명을 대상으로 총 42문항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점 척도 경우 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응답자가 중간 점수인 3점에 표시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오염변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매우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3점, 별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2점, 거의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1점에 표시하도록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 본조사

교사 1인당 유아 1~7명씩 총 306명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와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평가 척도를 동시에 작성하였다. 교사는 3회에 걸친 관찰자 훈련을 통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자유선택활동시간 동안 한 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하여 친사회적 행동이 일어날 때 마다 해당되는 행동에 체크하여 총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각 기관마다 자유선택활동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간은 대략 50분으로 한정하였다.

4. 자료분석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를 제시하였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의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 (PCA :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Varimax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Babcock, Hartle & Lamme (1995)가 제안한 범주를 기초로한 평가 척도와 상관관계수(Correlation Analysis)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의 성별, 연령,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을 보기 위해, 우선 각 변수간의 독립성을 검증한 후 성별, 연령에 대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한 후 집단간의 차이를 Scheffe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타당성

1) 요인분석

연구 문제 1인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항목들은 타당하게 선별, 구성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교사 235명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총 42문항에 대한 중요성, 적합성, 측정가능성을 평정하도록 하여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총 200부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모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였다. 회전 방식은 직각 회전 방식 중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각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KMO측도를 사용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 측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이 .86으로 나타났다.

<표 3>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검정

KMO 측도		.86
	Approx. Chi-Square	4366.6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df	861
	Sig	.00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Sphericity)는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 행렬이란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42개 문항에 대한 검정치가 4366.69이고 유의 수준이 .00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제작된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항목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8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고유값이 1.0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할 때, 29.22, 5.83, 4.80, 4.55, 4.39, 3.73, 3.19, 3.08 등 8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 8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8.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1번, 42번 문항이 속한 제 8요인의 경우 하나의 요인으로 묶기엔 너무 작고 총 설명량이 대한 기여도도 크지 않으므로 7개 요인으로 요인수를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설명량은 55.71%로 8요인 보다는 약 3.08% 정도 감소하였다. 물론 추출된 요인의 수가 많을수록 전체 설명량은 커지나, 전체문항의 수를 고려하여 하위 요인의 문항 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에는 요인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요인의 수를 조절하였다. <표 4>와 같이 추출요인을 7개로 지정한 결과 제1요인은 전체 변량에 대해 설명변량이 29.22%로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을 살펴 보면 또래와의 생활에 있어서 감정을 조절하고 만족을 지연하며 서로 칭찬·격려해 주고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제1요인을 구성하는 8문항은 ‘지도성’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은 타인존중의 능력을 바탕으로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행동 등이 포함되어 ‘도움주기’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호 의사를 전달하거나 대화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사소통’이라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또래를 배려 및 양보해 주고 서로 예의를 지키며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동들이 포함되므로 ‘주도적 배려’으로 명명하였다. 제5요인은 또래에게 미소를 보이거나 친

밀하게 부르는 등 또래에게 가까이 가려고 시도 명명하였다. 제6요인은 장소, 기회, 소유물 등을
 하는 행동들이 포함되므로 '접근시도하기'라고 나누는 행동이 포함되므로 '나누기'로 명명하였

(표 4)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요인분석

번호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공통성
38	화난 행동 자제하기	.74							.660
39	책임감 가지고 행동하기	.71							.652
37	갈등상황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	.70							.635
36	만족지연하기	.64							.543
40	놀이나 공간에 대해 자긍심 나타내기	.58							.526
21	친구의 좋은 행동(말) 칭찬하기	.48							.616
20	어려움에 처한 친구 격려하기	.47							.552
19	미안함/고마움 표현하기	.42							.508
13	타인에게 놀이감·물건·기회 주기		.75						.657
12	친구의 과제 돕기		.64						.542
14	친구의 어려운 상황 인식하고 돌보기		.60						.527
15	함께 놀이하기		.55						.437
16	공동과제 해결하기		.53						.391
11	교실의 허드렛일 참여하기		.45						.407
22	타인의 생각 인정하기		.45						.517
42	친구의 어려움에 관심 갖기		.42						.467
41	친구의 말(약속) 믿고 행동하기		.38						.565
34	놀이 집단에 참여의사 나타내기			.67					.587
23	또래와 상호의사소통하기			.63					.554
35	다툼 없이 함께 놀이하기			.63					.597
18	또래와 놀이에 대해 대화하기			.61					.452
30	또래의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놀기			.53					.519
29	또래의 놀이나 행동에 관심 가지고 말하기			.50					.601
17	도움 요구하기			.35					.368
5	타인에게 기회·물건 배려하기				.75				.661
3	양보하기				.63				.570
4	타인의 감정 위안하기				.61				.636
31	놀이나 생활 예의 지키기				.54				.620
10	놀이 정보 제공하기				.46				.507
32	화해하기				.39				.496
26	타인에게 미소 보이기					.74			.666
27	놀이의사를 보이는 신체적 접촉하기					.73			.578
25	또래에 대한 좋은 느낌 표현하기					.66			.648
28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61			.498
33	친밀하게 부르기					.49			.545
9	장소나누기						.73		.646
8	기회나누기						.72		.640
7	소유물 나누기						.66		.610
1	타인의 감정(생각)에 공감하기							.73	.600
2	타인 정서에 관심 나타내기							.72	.637
24	타인에게 우호적으로 접근하기							.49	.509
6	격한 감정을 가라앉혀 나타내기							.32	.431
고유값		12.27	2.45	2.02	1.91	1.84	1.57	1.34	
설명변량 백분율		29.22	5.83	4.80	4.55	4.39	3.73	3.19	
누적변량 백분율		29.22	35.05	39.84	44.40	48.78	52.51	55.71	

다. 제7요인은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고 우호적, 긍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깊으므로 ‘감정이입 및 조절’이라고 명명하였다.

2) 상관분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구인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해 7개 요인 점수와 총점 간의 Person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도성은 $r=.84$, 도움주기는 $r=.93$, 의사소통은 $r=.85$, 주도적 배려는 $r=.86$, 접근 시도하기는 $r=.84$, 나누기는 $r=.75$, 감정이입 및 조절은 $r=.85$ 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p<.01$). 또한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 간에는 전 요인 모두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도적 배려’와 ‘도움주기’는 $r=.85$ 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모든 경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p<.01$).

3) 공인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친사회적 행동평가 척도는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공인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국

내에 소개된 유아기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 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인위적 실험실 상황에서 사탕이나 연필 나눠주기, 땅에 떨어진 물건 주어주기 등의 행동을 보는 것으로 실험대상 유아가 자신의 욕구와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조건을 조작 또는 강조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자연적 상황에서 측정하는 본 도구는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자유선택 활동 상황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한 바 있는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공인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평가 척도 내용은 감정이입(empathy), 나누기(sharing), 돕기(helping), 의사전달(communication), 근접성 찾기(proximity seeking), 지도성(leadership)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제작된 친사회적행동 척도는 요인분석 과정에서 7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하위 척도간 상관을 측정하기 보다는 Babcock, Hartle & Lamme(1995)가 제안한 범주를 기초로 한 평가 척도의 전체 문항을 사용하여 공인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현장교사 59명이 자신의 담당학급에서 1~7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각 유아마다 본

<표 5> 친사회적 행동 요인별 점수의 상관관계 분석

	지 도 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 근 시도하기	나 누 기	감정이입 및 조절
지 도 성	1.00						
도움주기	.84**	1.00					
의사소통	.56**	.71**	1.00				
주도적 배려	.82**	.85**	.60**	1.00			
접근시도하기	.57**	.68**	.73**	.61**	1.00		
나 누 기	.58**	.68**	.60**	.62**	.58**	1.00**	
감정이입 및 조절	.66**	.73**	.66**	.69**	.77**	.63**	1.00
총 점	.84**	.93**	.85**	.86**	.84**	.75**	.85**

** $p<.01$

연구에서 개발한 친사회적 행동 척도와 Babcock, Hartle & Lamme (1995)의 평가 척도 2가지에 모두 체크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와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평가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두 평가 도구간의 상관은 .001 수준에서 .764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사회적 행동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유아들은 Babcock, Hartle & Lamme (1995)의 평가 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는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동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표 6>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와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평가 척도간의 상관관계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도구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764***

***p<.001

2. 친사회적 행동 평가 도구의 신뢰도

친사회적 행동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평가 도구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의 α 계수는 .85이었으며, 제 1요인인 지도성의 α 계수는 .85, 제 2요인인 도움주기의 α 계수는 .82, 제 3요인인 의사소통의 α 계수는 .80, 제 4요인인 주도적 배려의 α 계수는 .80, 제 5요인인 접근시도하기의 α 계수는 .80, 제6요인인 나누기의 α 계수는 .80, 제7요인인 감정이입 및 조절의 α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연령, 성,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에 따른 차이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와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평가 척도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유아의 연령, 성,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 등의 각 변수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수간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χ^2 검증 결과는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 유아의 연령과 유아의 성별

구 분	성 별		계	Pearson χ^2		
	남아	여아		χ^2	df	p
유아 4세	21(42.0)	29(58.0)	50(100)	2.93	1	.09
연령 5세	76(29.7)	180(70.3)	256(100)			

<표 8> 유아의 성별과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

구 분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			계	Pearson χ^2		
	1년	2년	3년		χ^2	df	p
유아 4세	25(25.8)	43(44.3)	29(29.9)	97(100)	4.83	2	.09
성별 5세	33(15.8)	96(45.9)	8.(38.3)	209(100)			

<표 9> 유아의 연령과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

구 분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			계	Pearson χ^2		
	1년	2년	3년		χ^2	df	p
유아 4세	25(50.0)	20(40.0)	5(10.0)	50(100)	41.80	2	.000
연령 5세	33(12.9)	119(46.5)	104(40.6)	256(100)			

***p<.001

위의 <표 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음이 밝혀짐에 따라 각 변수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과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은 두 변인이 정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 연령,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별로 그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차이

<표 10>에 의하면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M=46.18, SD=38.50)와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M=48.50, SD=29.1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5.83, p=.560).

<표 10> 유아 성별에 따른 차이

성 별	N	M	SD	t	p
남 아	97	46.18	38.50	-5.83	.560
여 아	209	48.50	29.19		

2) 연령별 차이

<표 11>에 의하면 4세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M=29.26, SD=16.82)와 5세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M=51.38, SD=33.4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98, p<.001).

<표 1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

연 령	N	M	SD	t	p
4세	50	29.26	16.82	-6.98	.000***
5세	256	51.38	33.47		

***p<.001

3)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에 따른 차이
<표 12>의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별 평균에서 보듯이 유아들의 친사회적행동 점수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표 12>에 제시한 것처럼 전체검사 점수를 이용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아들의 점수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303)=13.26, p<.001]. 따라서 실제 그 차이가 어느 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Scheffe방법을 이용한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많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에 따른 차이

경험 (년)	N	M	SD	F	p	Scheffe		
						1	2	3
1	65	32.97	23.09	13.26	.000***		*	***
2	139	46.91	35.19				*	*
3	102	58.34	29.71				***	*
전체	306	47.76	32.39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작된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문항들의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친사회적 평가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

하였으며, 표준화된 도구와의 상관정도를 확인하는 공인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들과 그 논의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사회적 행동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장 교사들이 생각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특성이 7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들은 묶인 문항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 등으로 명명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정의에 근거하여 요인별로 묶인 문항들을 살펴 보았을 때, 대체로 각 하위 요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항들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작된 친사회적 행동 평가 도구의 누적 설명량은 55.71%로 측정되었으며 특히 지도성의 설명량은 29.22%로 가장 높았고, 도움주기는 5.83%, 의사소통은 4.80%, 주도적 배려는 4.55%, 접근시도하기는 4.39%, 나누기는 3.73%, 감정이입 및 조절은 3.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교사들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지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작된 친사회적 행동 평가 도구가 유아기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Babcock, Hartle & Lamme(1995)의 평가 척도와 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평가 도구간의 상관은 .001수준에서 .764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사회적 행동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개발된 평가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1요인(지도성)의 Cronbach's α 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도 .70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PBSYC)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특성을 신뢰롭게 평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된 결과 연령 및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연령과 교육경험의 정도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측정하는데 적합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한된 지역에서 표집되었으므로 광범위한 지역과 확대된 연령층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만 구한 상황이므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을 통한 평가자간의 신뢰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42문항으로 기존의 도구에 비해 다소 많으므로 특별히 교사의 사전 훈련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의 문항을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과정까지만 진행되었다. 이러한 척도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조기에 증진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유아를 표집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영옥, 윤경선(1999). 친사회적 토의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307-324.
- 나희주(1998). 미술공동작업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혜숙(2000).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성과 반사회성. *유아교육연구*, 20(3), 85-97.
- 이옥경(1995).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65-91.
- 이은혜,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은화, 김영옥(2000). *유아사회교육*(개정판). 서울 : 양서원.
- 이은화, 김희진, 이승연(1996). 기본생활습관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2), 161-177.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윤정(1998).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bcock, F., Hartle, L. & Lamme, L. L.(1995). Prosocial behaviors of five-year-old children in sixteen learning : activity center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9(2), 113-127.
- Beaty, J. J.(1999). *Prosocial guidance for the preschool child*. N.J. : Merrill Prentice Hall.
- Bergen, D.(1995). A review :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Childhood Education*, 72(1), 57-59.
- Burford, H. C. & Foley, L. A.(1996). Gender differences in preschooler's sharing behavior.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1(5), 17-25.
- Crain, W. C.(1980). *Theories of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Dix, T. H. & Grusec, J. E.(1985). Parental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L.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01-233. Hillsdale, N. J. : Lawrence Erlbaum.
- Eisenberg, N.(1996). Relations of moral reasoning and vicarious emotion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10-219.
- Eisenberg, N. & Guthrie, I. K.(1999). Consistency and development of prosocial dispositions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0(6), 1360-1372.
- Fabes, R. A. & Eisenberg, N.(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4-55.
- Farver, J. M. & Branstetter, W. H.(1994). Preschoolers' prosocial responses to their peers'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34-341.
- Froming, W. J., Allen, I., & Underwood, B.(1983). Age and generosity reconsidered :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Child Development*, 54, 555-593.
- Froming, W. J & Nasby, W.(1998). Prosocial self-schemas, self-awarenes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5(3), 766-777.
- Greener, S. H.(2000). Peer assessment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ur. *Journal of Moral Education*, 29(1), 47-60.
- Hill, E. W. & Mullis, R. L.(2000). Intergenerational

- perceptions of attachment and prosocial behavior. *Marriage & Family Review*, 30(1/2), 59-72.
- Horton-Parker, R. J.(1998). Teaching children to care : Engendering prosocial behavior through humanistic parenting.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 Development*, 37(2), 66-77.
- Iannotti, R. J.(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s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46-55.
- Karylowski, B. A. & Karylowski, J.(1984). *Modeling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 Generalizability of the effec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Kendrick, D. T., Baumann, D. J., & Cialdini, R. B. (1979). A step in the socialization of altruism: hedonism effects of negative mood on children's generosity under public and private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47-755.
- Kim, Y. O. & Stevens, J. H.(1987). The socialization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63(3), 200-206.
- Krevans, J. & Gibbs, J. C.(1996). Parents' use of inductive discipline : relations to children'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6), 3263-3277.
- Mccall, R. B., Parke, R. D., & Kavanaugh, P. K.(1977). Imitation of live and televised models by children one to three years of ag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2(5, Serial No, 173).
- Miller, P. A. & Eisenberg, N.(1996). Relations of moral reasoning and vicarious emotion to young.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10-219.
- Naparstek, N.(1990). Children's conceptions of prosocial behavior. *Child Study Journal*, 20(4), 14-17.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Radke-Yarrow, M., Zahn-Waxler, C., & Chapman, M.(1983). Children's prosocial dispositions and behavior.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469-545. N.Y. : Wiley.
- Rosenkoetter, L. I.(1999). The television situation comedy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5), 979-983.
- Shantz, C. U.(1983). Social cognition.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Cognitive development(4th de.)*, 3, 495-555. N. Y. : Wiley.
- Staub, E.(1971). The use of role playing and induction in children learning of helping and shar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42, 805-816.
- Staub, E. & Noerenberg, H.(1981). Property rights, deservingness, reciprocity, friendship : The transactional character of children's shar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71-289.
- Stowitschek, J. J.(1986). *Social Competence Intervention Project : SCIP (Video Tape)*.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of Vanderbilt University.
- Wyckof, C. L. & Klein, H. A.(2000). Children who care. *Childhood Education*, 77(1), 43-44.
- Zielinska, I. E. & Chambers, B.(1995). Using group viewing of television to teach preschool children social skills. *Journal of Educational Television*, 21(2), 85-99.
- Zimmerman, B. J. & Levy, G. D.(2000).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prosocial behavior toward same an alternate race children among white preschoolers. *Current Psychology*, 19(3), 175-182.